

대립 제1주일

기도서 P. 206 A해

- 제1독서(이 사 2, 1-5)
- 제2독서(로 마 13, 11-14)
- 복 음(마 태 24, 37-44)

#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불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 강 련



## “죄중의 죄”

이 순 성 신부

세상에 답답한 사람도 많다.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 시키는 일에 뻔질거리며 농땡이만 부리는 사람, 우화속의 청개구리 처럼 반대짓만 되풀이 하는 사람,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헌데 답답하기로 말하자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거들떠 보기는 커녕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이 일등이다. 일등가는 그 행위가 소위 무관심이라는 행위이다.

인간 세상은 좋은 일이건 언짢은 일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관심 대상이 되어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간인 것이다. 따라서 묻고 시키는 일에 엉뚱한 대답, 농땡이 내지는 말썽을 일으키고 반대짓을 할 지언정 그 행위는 비록 답답하긴 해도 인간다운 인간의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관심이라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관심밖의 것이며, 나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관심밖의 것인만큼 답답의 지경을 넘어서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비인간의 짓거리인 것이다. 언젠가 어떤 젊은이가 “신부님 사랑의 반대는 무언지 아세요? 반대나 증오가 아니고 무관심이요.” 한 말을 생각해 볼 때 결국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이자 비인간의 짓거리라면 그것은 죄악중의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새삼 무관심이 고의적인 것이든 무지에서 기인된 것이든 죄악으로서 끔찍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역사를 오늘 복음에서 읽게 된다. 노아때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축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모두 휩쓸려 갔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생활이 죄악스럽거나, 불결해서가 아니라 일박한 재난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사에만 온통 넋을 빼앗긴 채 그것이 인간의 삶인양 착각한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의 동태엔 무관심한 채 세상사에만 두 눈을 밝히다가 고스란히 수장되는 변을 당했던 것이다. 인간이라는 조건과 사회라는 환경이 변치않는 한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되면서 발전한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 말하시는 주님의 가르침도 노아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고자 하시는 것으로 봐야 한다.



## 다시 다짐하는 소리

숲정이 창간 8주년을 맞으며, 숲정의 모습을 다시 살펴본다.

숲정이...순교자들의 뜨거운 피로 적혀진 지명(地名)이다. 하나뿐인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가 바로 신앙임을 깨우쳐 주는 교훈이 그득한 이름이다. (지금 그 자리에는 해성학교가 자리하여 중등교육의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 신앙의 고향이 그곳이기에, 당연히 교구보(敎區報)의 이름이 되었다. 교구주보 숲정이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가 두려울 뿐이다.

소리...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이다. 「주의 길을 닦고/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모든 골짜기를 메우고/높은 산과 작은 뫼는 깎아내려/좁은 길이 곧아지며/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은 인류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가 3, 4-6)던 요한의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소리를 질러 보는 것이다. 「두 벌 옷을 나누어 입고, 먹을 것을 나누어 먹으며, 세리(稅吏)는 정한대로만 받고,

(루가 3,

10-14)던 요한의 소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메아리없는 소리, 되돌아 오던 소리, 너무나 큰 소리에 묻혀서 컷칭이 찢어질뻔하던 지난날들을 결려하게 되 돌아 본다,

요십이...예수를 기르셨던 요셉 성인의 이름을 전라도 식으로 이렇게 부른다. 얼마나 다정한 이름인가 지면은 비록 좁지만, 그래서 넉넉하게 살고 싶어 만화와 만평을 시작할 때 서슴없이 그 이름을 골랐다. 숲정이를 대하는 모든 이들의 다정한 벗이 되고 싶어서, 말없이 책무를 다해내던 요셉 성인의 모습과 거리가 먼(?)때가 있어서인지 브라운관이 터진적이 가끔 있었다.

다시 다짐하는 소리로 대신한다.

## 숲 정이 산책

대립첫주를 맞아 주님의 동태를 살피는 우리가 되고파  
 의처본다. (수류 천주교회 주임신부)

### 교구에 최신 인쇄기 구비

—주교님 회갑기념 하사품(下賜品)으로—

주교님 덕에 교구가 고속화 날개를 달게 됐다.

지난 11월 22일, 교구청에 몇 달을 부풀어 기다리던 선박, 트럭 한 대가 도착, 육중한 기계 박스를 내려 놓았다. 말만 들던 최신 「마스터 인쇄기」—신기하다 못해 무슨 보물처럼 싸두고 싶은 귀하고 값진 선물이었다.

기계문명의 첨단, 스피이드 경주장에 앉아 어찌던 눈만 깜빡이던 거북이 신세를 면했다고나 할까. 자치(自治)의 명문 우리 교구에도 이제 바야흐로 신나는 운전기의 새 발톱이 구르게 됐다 생각하니 마냥 감격이 새롭다. 하여간에 먼저, 이 시대에 발맞춰 준 하느님 섭리와 주교님 후덕에 새삼 고개숙이며 감사드려 마지않는다.

사실, 이 새 인쇄기는 주교님의 하사품—금년에 회갑을 맞으신 본 교구장 김 제택 주교님께서 극구 사양하신 수연(壽宴)과 정성껏 모아 드린 축하 예물을 고스란히 다시 교구에 내주심으로 마련된 선물이다. “교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에 보태쓰라”는 주교님의 뜻을 뿌리칠 수 없어 우린 이내, 오늘에 절실한 이 기계를 구입키로 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한편 바쁘면서도 정성모아 쏟은 어버이의 크신 맘에 저으기 먼구스러움이 앞선다.

본 인쇄기는 부속 기계들을 포함 실비 약 900만원에 상당한 것으로, 주교님과 교구 신도들의 뜻을 새기며, 앞으로 오래 오래 교구의 활기찬 모습들을 엮어 펴게 될 것이다. 차체에 우리 주교님께 보여주시 교형 자매들의 뜨거운 정성과 애정에도 이 지면을 통해 늦으나마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튼, 새해부터는 이 문명이기의 선용을 최대 활용으로 교구의 일익 발전을 특히 교육·홍보에의 빛나는 창달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이젠 남부럽지 않게 우리 공문도 회보도 또 각종 사목 정보 자료 제반 간행물들이 깨끗한 인쇄물들로 전달되리라 크게 기대해 본다. 모쪼록 교구 사무처 뿐 아니라 각 본당계 단체의 그침없는 애용과 폭넓은 활용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참고로 지난 5월 28일 주교님 회갑을 맞아 보내 주셨던 우리 교우들의 정성, 영적 그리고 물질예물을 여기 소개 되새겨 드린다.

영적 예물 : 주모경 (55, 072번), 화살기도 (31, 375번), 묵주기도 (31, 127번), 미사참례 (17, 270번), 희생 (11, 440번)

물질예물 : 각 본당 (7, 391, 255원), 교구내 단체 및 기관 (1, 264, 000원)  
합계 : 8, 655, 255원

### 3개 본당 연합의

### 성가 발표회를 앞두고

—12월 13일, 전주 시민문화관에서

오는 12월 13일(토), 전주 시민문화관에서 성(聖) 음악제전의 막이 오른다. 금년도 순교자 현양대회시 6개본당 성가대가 한 목소리로 노송동 성당에서 찬미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뭉치기 시작하여 그 열매를 맺은 것이다. 지난 두달 동안, 창인동(이리)·전동·중앙(전주) 3개본당의 120명 성가대가 꾸준히 연마한 결과를 선보이는 이 발표회에 우리들의 관심이 요청된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자꾸만 멀어져가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바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실로 아름다움과 평화, 그리고 생명의 약동이다. 젊음이 퇴폐속에 묻히기 보다는 건장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직도 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서있는 위치가 어디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리와 전주간의 지역적인 거리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다. 직업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이고 싶은 마음과, 하나되고자 하는 움직임만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앞에 다친 모든 일들도 이렇게 풀어나가자. 함께 실장을 나누면서...

젊은이들에게 끝없는 박수를, 그리고 애정깊은 관심을 보내자.

### 80년 추수감사제 성황리에

금년도 추수감사제가 11월 26일 11시 전동천주교회에서 교구 농민회 주관으로 40여분의 신부님과 주교님의 주례로 80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각 지방 농산물 30여종류가 봉헌되면서 개최되었다.

주교님은 강론을 통해 어려운 조건속에서 농촌 복음화와 농민의 권익을 찾기 위한 농민회 활동을 높게 평가하시고, 생산비 보장은 꼭 이루어져서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부 행사에서는 생산비 보장운동의 경과보고와 조사원들을 격려한 후 자리를 함께 했던 농민들의 공동결의도 가졌다.

이어 참가자들은 성당내 정구장에서 떡과 막걸리를 함께 하며 흥겨운 농악과 탈춤으로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끼리 끼리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활동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정의로운 농촌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후년에도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는 즐겁다. 내년 행사에는 더 많은 형제들이 함께 하자고 다짐하며 헤어지기 서운한 모습으로 각자 발길을 고향으로 돌렸다. <전>

행복의 전당

행운예식장

김제군 김제읍 요촌리 2구 217번지

전화 2317

대표이장 근(이냐시오)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엄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4451 유율리안나

양지쪽

이 작은 가정에 사랑의 손길을...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Mt 25 : 40)

전주시 효자동 우전국민학교 후편에 세 가족의 운명을 보다 못해 교우 형제 자매에게 호소합니다.

부부 꿈을 안고 결혼한지 만 1년, 26세의 허로사(은자)여사, 1년전 새 생활의 설계와 미래의 참된 삶을 위하여 결혼과 더불어 전동 어느 전세방에 들어 생활을 시작, 직장에 다니던 부군은 직장 기구축소로 인하여 실직하고 막노동으로 하루 하루를 지내왔으며, 부인 허여사에게는 비록 생활은 곤경에 처했으나, 사랑의 열매를 맺어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두 부부는 허리띠를 풀라가면서도 내일의 희망을 갖고 누구 못지 않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여 오던중 불행은 겹쳤습니다.

두 가족이었던 이 가정에는 귀여운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배불리 밥 한 그릇 못먹고, 생선 한 마리 못사다 먹고 살아온 처지라 해산과 더불어 산모인 허여사는 반신불수(중풍)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간호할 사람이 없어 부군마저 막노동도 못하고 부인 간호에 나섰습니다.

그 동안에 나름대로 모은 돈이라고는 겨우 몇천 안되는 단칸방에 살아가는 형편으로 병원은 생각도 못하고 한약방을 찾아 이 약방 저 약방 용하다는 약방으로 동서남북을 헤매어 차도를 느낄즈음 그 돈마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밤과 낮을 모르고 우는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는 가슴을 찢어 베이며, 끼니 끊일 것 없는 부엌에 들락거리며 부인과 아기의 빨래하는 부군의 모습은 참으로 눈으로는 보지 못할 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병을 마치고 참다 못해 시내 한약방을 찾아 문의한 결과 앞으로 3~4개월 약을 복용하면 완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생미사 바치기를 소원으로 삼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 이 성가정에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실 교우 형제 자매는 아니제시는지요?

뜻이 있는 형제분은 성모병원내 의료협동조합(☎ 0498)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병을 다녀와서 김 예레니모(수길)

대립절이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와 보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윤 경 미 장 원

최윤경 미용실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 역전 앞 최 윤 경(유리안나) 전화 86653

개인지도식 교습-학생부. 성인부

제일 주산 경리학원

교재 무료배부. 시간은 자유로 정함

위치 : 한국은행 앞 전화 3132

원장 성 달 응(안드레아)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질, 호마이카, 락카, 절착제, 청단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 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요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당)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2377번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 제대장식 유명강사 직접 꽃꽂이 회원 모집

※교우여러분께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2628

범 띠또(떡배)·이 마리아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 제 공 예

주 이 협 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수시 접수> 매월 1일 개강!

주 산 · 부 기 · 타 자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유치반(6세) 개설

김계음 요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앞)

관인 제 일 경 리 학 원

원장 김유근(요한) 2953

원아모집

소 화 유 치 원

입학자격 : 만 4세~6세 까지  
모집인원 : 남·여 80명 (2학급)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80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980년 12월 20일 오후 4시까지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정기총회...12월 6일 오후 3시, 덕진 가톨릭 학생회관에서
2. 제 2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월례회...12월 6일 오후 4시, 월명동 성당에서
3. 전주 시내 교리교사 피정...12월 6일 오후 5시~7일, 가톨릭 센터에서
4. 대학생 화요미사 안내...12월 2일(화) 오후 5시 30분, 덕진 가톨릭 학생회관  
※ 잠시 중단되었던 화요미사가 실시됩니다.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농민회 지도자 연수회...9일 오후 1시~12일 12시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참가비-3,500원 ※ 5일까지 농민회로 참가 신청 바람
6. 80년 추수감사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많은 후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군·읍지구 푸르실리스타 올드레아 예고...7일 오후 2시, 월명동 성당에서
7. 무주 철천공소 건립을 위한 표고·기를 판매에 중앙·진동 신자들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8. 문화강좌 안내...12월 6일(토) 오후 5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주제-우리 문학의 반성, 강사-이원석 시인(한국 문인협회 부이사장)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문정현  
3874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김병규

1. 축! 영명: 박성팔(안드레아) 신부님-축하드립니다
  2. 가정방문: 진북동·인후동·금암동 12월 2일부터
  3. 특별강연: 대림 1주일(30일)-예수의 유년기  
대림 2주일(12월 7일)-마태오 복음에 따른 예수의 유년기  
대림 3주일(14일)-메시아는 누구인가?  
(마태오 1. 1~25 주해)  
대림 4주일(21일)-메시아의 운명  
(마태오 2. 1~23 주해)  
시간-저녁미사 후
  4. 예비자(노인·성인·학생) 합동 실습교리(성사편)  
일시: 12월 7일 오전 11:30~12:30, 장소: 강당
  5. 예비자 교리 시간안내  
학생반: 토(오후 6시), 일(오전 10시)  
성인반: 남자-목(오후 7시30분), 일(오전 11시30분)  
여자-목(오전 10시·오후 7시), 일(오전 11시30분)  
노인반: 화(오전 10시), 수(오전 10시)
  6. 남자 2젠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7. 가톨릭 음악제: 12월 13일(토) 낮 4시·밤 7시30분
- 지난주 불헌금: 423, 623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윤근  
사도 회장 박준근

1. 제 1차 성령 세미나 개최: 12월 8일~13일까지  
매일 오후 2시~4시까지, (절수: 8일, 오후 1시)
  2. 성령 기도의 밤: 12월 5일 저녁 7시, 다같이 참여를
  3. 베소라 성서 강의: 매주(화) 저녁 7시30분~9시30분
  4.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매주(일) 오후 2시~4시까지
  5. 성령 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6. 금주의 성경 읽기: 구약의 다니엘서(외경 포함)
  7.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8.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회와의 약속은 곧 하느님과의 약속입니다
- 지난주 불헌금: 238, 461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오  
사도 회장 양상열

1. 가정방문: 덕진·금암동-1일부터 6일,  
팔복·중천-8일부터 13일
  2. 성사표는 본당 사무실에서 찾아가세요  
월~토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일 당일엔 성  
사표를 찾아 가실 수 없습니다
  3. 주님의 성전에 약속하신 헌금은 판공성사 전까지...
  4. 오늘부터 대림 주일입니다
  5. 사도회 예산심: 12월 7일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장 단체장 공소회장님 한분  
도 빠짐없이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6. 본당 판공성사 일정: 12월 14일 저녁 7시  
하루뿐입니다 단 할아버지 할머니는 17일까지  
오후 1시~저녁 6시까지
- 지난주 불헌금: 259, 975원

(북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임원·교무·감사)

2. 첫 철례: 12월 6일
  3. 판공성사 일정: 오전 10시~12시, 오후 3시~5시)  
3일-다가동·태평동·진북동, 4일-중양동·고사동  
화산동, 5일-완산동·기타, 6일-학생과 직장인  
※ 날자와 시간업주 본당 신부님 사무실에서 성사표  
받고 신부님과 면담후 고백정사를 보세요
  4. 북자 부녀회 월례회: 12월 1일 오전 10시  
매일 첫 월요일로 변경
  5. 불헌금(교무금) 미납금 속히 납부 바랍니다
  6. 81년도 불헌금: 양심적으로 불헌 합시다(30%)
- 지난주 불헌금: 359, 65)원

(서화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사도회 확대회의: 다음주일(12월 7일) 공식미사 후  
안건-81년 예산확정 및 사목계획 수립
  2. 본당내 8개 Pr 간부 모임: 공식미사 후(Pr 회의실)
  3. 가정방문: 12월 2일(화)-10만, 3일(수)-11만,  
4일(목)-12만, 5일(금)-13만
  4. 중·고생 gen미사: 매주 토요일 6시 미사
  5. 교리교사 및 쉐지도자 모임: 일요일(30) 오후 1시반
  6. 다음주 전례 담당  
독서-①김한기 ②차상열, 신자들의 기도-김광수
- 지난주 불헌금: 147, 000원 교무금: 145, 5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80년 마지막 사도회 월례회: 12월 7일 (81년도 예  
산 심의) ※ 구역장님·반장님 참석 바랍니다
  2.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12월 6일
  3. 청년회 성가연습: 매주(화) 오후 7시 30분
  4. 가을 판공성사 일정 안내: 12월 1일-서신동 1구,  
2일-서신동 2구, 3일-진북동 2동1반, 4일-진북 2  
동 3반, 8일-진북 2동4반, 9일-진북 2동2반·5반  
10일-진북 2동6반·7반, 11일-진북1동
- 지난주 불헌금: 212, 74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중  
사도 회장 유석중

1.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30분
  2. 학생회 임원회의: 오후 4시
  3. 숲정이 쉐주최 성경 퀴즈대회: 12월 7일로 연기
  4. 다음주 가정방문: 2~5일-전동·다가동·중양동
  5. 수녀원 및 소강당 신축기금 내주신 분들  
다음주에 명단 발표
  5. 주일학교 자모회: 10시 미사후
- 지난주 불헌금: 414, 08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어린이 보례·영세식: 오늘 오후 3시 학생미사 후
  2. 가정방문: 12월 5일-효자동 2가
  3. 판공성사: 12월 10일-두현공소, 11일-물꼭지 공소  
본당미사는 없습니다
  4. 기사회 월례회: 12월 6일 오후 2시
  5. 가을판공 예정일: 14일·21일(주일)
  6. 어머니 성가대 모집: 성탄 준비를 위한 모임이오니  
뜻있으신 분들은 금요일 10시 미사후에 모여 주세요
  7. 수녀원 신축기금 십일자: 최윤도(1만원),  
송길경(2만원), 김우순·소나임(각5천원)
- 지난주 불헌금: 88, 095원 교무금: 116, 000원  
어린이 헌금: 2, 730원